

“적정한 공무원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필요”

근본적 개선 통한 적정 행정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청 등 도내 하반기 인사발령 종료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6급 이하), 10일 전주시청 등 도내 하반기 인사가 줄줄이 이뤄졌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인수인계는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은 늘 초보공무원을 마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불만이다.



전주시청 전경

업무를 물려주고는 갔다”며 “이 시절을 모르는 민원인들은 ‘무능하고 멍청한 공무원’ ‘그것도 못하냐’며 폭언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 무렵 수차례 부끄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인수인계는 규정상 공무원 개개인 모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구두로만 전달하거나 인수인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통 공무원 발령은 출근일 기준으로 3~4일 전,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전날에 발령이 난다. 7월 1일자 발령이라면 6월 30일 오후 6시에 발령이 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발령대상자는 막상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다음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어느 부서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하물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있을 까닭이 없다.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부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참아가며, 그것도 매우 갑작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새로 배치된 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하지만 왜인지는 몰라도 그 어느 조직도 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인사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인력의 모자람, 시간의 촉박함 등을 핑계로 내세워 바로 전날 혹은 3~4일 전에 발령 공문을 낸다는 것이다.

그 다음 옮기는 부서에 어떻게 적응할지,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을지는 오롯이 발령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 두고 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뜯어 고칠 필요도 없고, 재정을 더 투입할 필요도 없고, ‘악폐습’과 같은 이 발령과 인수인계 시스템을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 바로잡아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이것만 개선돼도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러시를 상당히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인수인계 업무의 주요 사항 누락으로 시민들에게 생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 시장 군수 등은 공무원들이 업무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해서 민원인들의 행정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장 군수 등 기관장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계자·인수자 간 인계인수 문서로 함이 필요하고 특히 민원 관련된 사항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동시에 업무에 숙달될 동안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부서의 관리자들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시장 군수 등의 가장 기초적인 대민업무가 방치되고 엄청난 이벤트 사업을 벌이는 것이 지자체장 본업인 것처럼 착각시 되고 있다.

시장 등 기관장이 각종 이벤트 행사, 도시를 성장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방 행정의 핵심인 민원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수인계할 시간 여유가 있는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적정한 인수인계 및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김욱기 기자

롯데어린이집, 백만천사 나눔 동참

전주시복지재단에 프리마켓 수익금 131만8000원 기부

롯데어린이집(원장 소효진)은 17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31만8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어린이집에서 프리마켓을 통해 아동 옷과 장난감, 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모은 수익금 전액이다.

소효진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더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원생들과 함께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백만천사가 되어준 롯데어린이집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실시간 수영장 이용객 현황 정보 제공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여름철 성수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간 수영장 이용객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완산수영장과 덕진수영장은 무더운 여름철이 극성수기로,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는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직장인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전후로 혼잡이 극에 달해 이용객들은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거나,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이에 공단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수영장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입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이용

객 방문 기록을 수집하고,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구분한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 대가나 헛걸음 등의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시민 수영장 이용 수요를 예측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덕진수영장, 완산수영장 뿐 아니라 도내기생국민체육센터와 라온체육센터까지 총 4개 수영장 시설에 적용된다.

구대식 이사장은 “여름철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화물차 공영차고지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배 의원)가 17일 덕진구 장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장을 찾아 각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 안 심사를 위한 사전 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을 꼼꼼히 심사하는 것은 물론, 화물차량 주차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시청 태권도부 훈련장 찾아 선수단 격려

“태권도부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감사” 각종 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두며 전주 위상 높여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태권도 선수들을 격려했다.

우범기 시장은 17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 훈련장(화산체육관)을 찾아 선수들의 겨루기 및 훈련을 참관하고 태권도부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 선수단은 지난 상반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주의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김태운 선수는 최근 열린 ‘제54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국가대표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전주시청 태권도부는 지난해 다문

화가점을 위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화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 예절”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리 태권도부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인내와 정진력을 기르는 무도이며 우리 시 태권도부가 지역사회의 화합에 많은 역할을 하는 점을 알고 있어 직접 찾아 선수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7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 훈련장(화산체육관)을 찾아 선수들의 겨루기 및 훈련을 참관하고 태권도부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